

지난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칠레 북부의 이티케와 안토파가스타 사이에 있는 아타카마 사막에서는 '살리트레 (SALITRE) IV' 다국적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살리트레 IV 훈련은 칠레 공군(Fuerza Aérea de Chile, FACH)이 레오나르도 로마니니 구티에레스 '로마노'(Leonardo Romanini Gutierrez 'Romano') 공군전투사령관 지휘 하에 칠레 공군을 비롯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공군이 참가했다. 이 훈련 현장을 본지 객원인 케이스-얀 반 더 엔데, 르네 반 부지크 기자가 취재했다.

취재 | Cees-Jan van der Ende, René van Woezik, Design | Shin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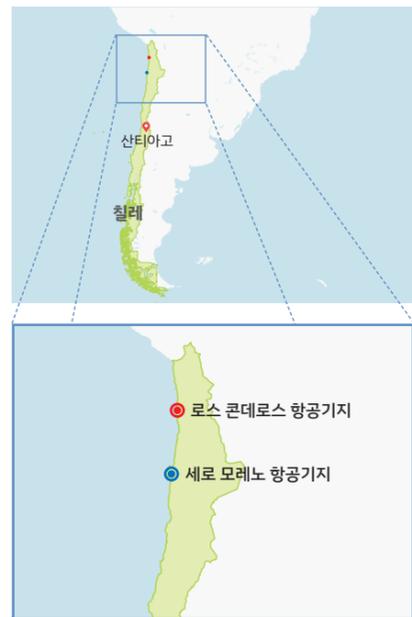
WAR GAMES



살리트리테 훈련은 브라질에서 진행되는 '크루즈엑스(CRUZEX)' 훈련과 함께 중남미에서 가장 중요한 연합공중훈련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유엔(UN)과 나토(NATO)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상호운용성 강화 훈련이다.

2004년에 처음 조직

2004년 칠레 공군은 살리트리테 평화유지훈련을 처음 조직했다. 첫 번째 훈련에서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군과 황군은 안토바가스타 북쪽 세로 모레노 항공기지(Base Aérea Cerro Moreno)에서 출격했고, 적군(대항군)은 이티케 남쪽의 로스 콘데로스 항공기지(Base Aérea Los Cóndores)에서 출격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02년에 칠레 정부의 국방정책기관에서 수립했다. 2004년 훈련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미라주 III 전투기와 포커 F-27 정복기, 칠레 공군의 미라주 5 및 미라주 50 전투기와 전설적인 EB-707 공중조기경보기(AWACS)기가 동원됐다.

이후 같은 지역에서 2009년과 2014년에 살리트리테 훈련이 실시됐다. '살리트리테' 또는 '살트페트레(Saltpetre)'는 페루와 칠레 사막에서 발견되는 물질로 비료, 로켓 추진 연료, 화약 등에 사용되는 질산칼륨의 일종이다.

한때 살리트리테 IV 훈련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좌절됐다. 칠레 공군 작전국장이자 훈련 부감독관인 맥시모 베네가스 라지오 '부두'(Maximo Venegas Raggio 'Vudu') 공군 준장은 "네 번째 살리트리테 훈련은 2019년에 계획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습니다"라고 밝혔다.

2021년 2분기에는 알레한드로 아레바로 알레그리아 '아스테릭스'(Alejandro Arevalo Alegria 'Asterix') 공군 대령은 라지오 준장의 참모들을 이끌고 커피를 마시며 살리트리테 훈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현실이 됐고, 2021년 11월에 초기 계획 회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에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미국, 우루과이는 'LIVEX(Live Exercise)'에 참가하기로 했지만, 콜롬비아 공군은 예산 문제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마지막 계획 회의는 7월 10일에 마무리됐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루과이 공군은 A-37 공격기와 스페인으로부터 도입한 KC-130H를 동원해 LIVEX에 참가하고자 했지만, KC-130H 한 대가 활주로 사고로 파손되면서 불참하게 됐다. 이 사고로 우루과이 공군은 부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와 함께 훈련을 참관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공군도 참가

칠레 공군은 살리트리레 훈련이 시작되기 3주 전부터 페드로 나두 파베스(Pedro Nadeau Pavez) 준장이 지휘하는 제5항공여단의 모기 지인 세로 모레노 항공기지에서 준비작업을 시

작했다. 파베스 준장은 칠레 북부 영공 대부분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한다. 7비행대대(Grupo 7)와 8비행대대(Grupo 8)는 F-16AM/AM M4를 운용하며, 이들 기체는 네덜란드 국방부가 두 건의 '피스 암스텔(Peace Amstel)' 사업을 통해 칠레 공군에 인도한 것이다.

8비행대대는 F-16AM/AM 외에도 탐색구조를 비롯해 특수전 임무를 위해 벨 412EP 헬기도 다수 운용하고 있다. 개량된 벨 헬기는 2009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칠레 공군은 네 개 기종의 벨 212EP도 12대 운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칠레 북부에서 남극까지 칠레 전역에 배치돼 있다.

참가국 중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브라질이였다. 10월 8일 토요일에 세로 모레노 기지에 착륙했다. 브라질 공군은 F-5EM 전투기 6대와 함께 최신 자산인 KC-30과 KC-390 급유수송기를 동원했다. 이 중 KC-390은 연합훈련에 처음 동원된 것으로, 칠레 남부에서 브라질 카노아스 항공기지에서 탑재한 연료를 F-5EM 전투기에 급유했다.





10월 9일 일요일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도착했다. 참가 전력으로 아르헨티나 산 루이스 주의 빌라 레이놀즈 항공기지에 배치된 5항공여단 예하 5전투비행대대(G5C) 소속 A-4AR 파이팅 호크 3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탄델 항공기지에 배치된 6항공여단 예하 6전투비행대대(G6C) 소속 IA-63 팜파 III 공격기 3대가 동원됐다. 이 외에 C-130H+ 수송기와 보잉 737-76N VIP 이송 및 수송기도 참가했다.

10월 10일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교육이 진행된 가운데 구티에레스 칠레 공군전투사령관과 파베스 5항공여단장이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훈련에 참가한 다국적군은 아타카마 상공에서 3일 동안 관속 및 비행 훈련(FAM-FIT)을 실시했다.

이 기간 중 훈련 참가국 조종사들은 7/8 비행대대 소속 F-16 전투기와 1비행대대가 평소 로스 콘도레스 항공기지에서 운용하는 A-36 훈련기 3대와 위협 식별(Threat Identification) 및 지상 공격(Surface Attack)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스페인이 개발한 A-36 훈련기는 지난 40년간의 활약을 끝으로 올해 12월 19일 퇴역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살리트리레 훈련이 사실상 마지막 임무였다. 이들 외에 벨 412EP 헬기들은 폴란드에서 제작된 MH-60M 블랙호크 헬기와 탐색구조(SAR) 및 전투탐색구조(CSAR) 임무를 수행했다.

브라질 공군 제1수송비행단/제1수송비행대대(1º/1ºGT)가 새로 도입한 KC-390 밀레니엄 급유수송기는 세로 모레노 항공기지에서 이륙해 살리트리레 훈련 중 FAM-FIT과 LIVEX 단계에 참가해 브라질 공군의 F-5EM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KC-390 지휘관인 플라비오 디니즈 페레이라(Flávio Diniz Pereira) 소령은 “각 COMAO(혼성항공작전)는 절차와 전술이 정확하게 정의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중급유를 지원하는 경우, F-5EM의 전투 계획을 더욱 유

연하게 수립할 수 있어요. 특히 KC-390은 훈련 환경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고, 훈련 기간 내내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줬습니다”라고 말했다.





브라질 공군파견대를 지휘한 다비 데 아브레우(Davi de Abreu) 중령은 “브라질 공군은 임무 완수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이번 훈련을 마쳤고,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50회 이상의 전투 소터를 실시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한 아르헨티나 공군 장교는 “아르헨티나 공군이 참가했던 마지막 다국적 훈련은 2014년의 살리트레 III였던 만큼 이번 훈련은 매우 중요한 훈련으로 여겨졌습니다. 2014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고, 조종사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팜파 III(A-63)와 파이팅 호크(A-4AR) 조종사들이 다른 공군 조종사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 같은 수준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젊은 조종사들은 처음으로 다국적 환경에서 다른 항공 자산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등 이번 훈련을 통해 가장 값진 경험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항공기, 전투 통제 인원과 함께 색다른 시나리오도 전개됐습니다. 우리는 다른 공군과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지만, 같은 편대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르헨티나 공군은 이번 훈련이 시작되기 수주 전 현지 훈련인 ‘인테그라도르 델라도(INTEGRADOR DÉLADO)’를 통해 철저하게 대비했다. 이는 한 번에 최대 15대의 항공기를 출격시키는 군사력 배치 훈련이었다.





대항군

청군은 FAM-FIT 첫날부터 OPFOR (Opposing Forces - Red Forces)과 대적했다. 대항군 지휘관이자 3비행대대장인 다보르 아르부니크 '아르세날'(Dabor Arbunic 'Arsenal') 중령은 12대의 전투기를 운용했다. 이 중 4대는 1비행대대의 A-29B 슈퍼 투카노였고, 4대는 3비행대대의 F-16 블록50 기체였다.

칠레 남부의 푼타 아레나스에 배치된 12비행대대의 F-5E/F 타이거 III도 4대 동원됐다. 훈련 초기에는 2대의 F-5F와 최근에 개량된 10비행대대의 록히드 KC-130R (992)로 공중급유 훈련을 했다. F-5E III 3대는 11일 오후 늦은 시간에 로스 콘도 콘도레스 기지에 도착했다.

산티아고 IAP에 배치된 10비행단도 최근에 도입된 E-3D와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보잉 KC-135E 공중급유기를 동원해 청군과 적군을 지원했다. 특히 KC-135E는 하루에 2회 로스 콘도레스 기지에서 이륙해 3/7/8 비행대대 소속 F-16에 공중급유를 지원했다. 또한 노후한 TF33-PW102 터보팬 엔진 4대로 추진되며,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비 인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LIVEX 단계는 10월 14일 금요일에 시작됐고, 단일한 COMAO(혼성항공작전) 임무가 수행됐다. 당시 칠레 공군은 새로 도입한 '센트리(Sentry) 906'이 아타카마 상공에서 하강해 세로 모레노 기지에서 2회의 터치 앤 고(touch-and-go)를 실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90% 실시율과 300회 이상 비행

살리트리 훈련의 마지막 날이었던 10월 21일에는 VIP 데이가 진행돼 모든 참가국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1970년대 초에 탄핵된 살바도르 아옌데 고센스(Salvador Allende Gossens)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칠레 국방장관인 마야 페르난데스 아옌데(Maya Fernández Allende) 장관이 주최했다.

훈련 중 90%의 실시율로 300회 이상의 비행이 실시됐다. 칠레 공군과 841명의 참가 인원은 훈련 임무를 잘 수행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 중남미 지역에 계획된 다음 다국적 훈련은 크루즈엑스(CRUZEX)로, 2024년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나탈 기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